



Deloitte in Media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제 32 호 | 2018.6.29

부동산자문 '1 등 굳히기' 나선 안진(더벨, 5.15)

부동산자문 '1 등 굳히기' 나선 안진

[thebell note]

박시은 기자 공개 2018-05-15 11:01:26



이 기사는 2018년 05월 14일 08:12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로이트안진 부동산그룹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 최근 상업용 부동산 전문컨설팅 회사를 인수한 데 이어 그룹 리더 고제를 필두로 대대적인 인사개편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 자문업계에서 안진의 지위는 국내 빅4 회계법인 중 단연 톱티어(Top-Tier)다. 이토록 과감히 변신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딜로이트안진이 이번에 합병한 '토마스 컨설턴트'는 캐나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전문업체다. 주로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 리테일 시설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리테일 부문의 자문 비중이 다소 적은 딜로이트안진이 새로운 기획력을 확보하게 해준 M&A라 할 수 있다. 국내 회계법인인 자문업체를 통째로 인수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남다르다.

토마스 컨설턴트 인수는 딜로이트안진의 상업시설 부문 자문이 취약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된 것이다. 딜로이트안진의 연간 부동산 부문 매출(자문 실적)은 100억원이 넘는다. 국내 회계법인 중 유일하다. 다만 자문 분야는 오피스빌딩이나 주거시설 등에 편향돼 있었다. 최근 몇 년 새 대기업들의 대형 쇼핑몰 조성사업이 잇따랐는데, 안진은 해당 자문권을 중소 컨설팅업체들에 대부분 빼앗기다시피 했다.

신세계 스타필드 하남점과 고양점, 신세계센텀시티, 롯데월드타워몰, 여의도 IFC몰, 에버랜드 개발사업.....지난 수 년 간 국내 내로라하는 대형 유통기업들이 진행한 사업들이다. 이 굵직한 프로젝트를 직원 9명 규모의 토마스 컨설턴트가 모두 맡았다.

들을 수임하지 못한 건 비단 딜로이트안진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동안 국내 회계법인의 부동산 자문은 사업성 분석과 거래자문, 부동산 중개 등의 업무에 국한돼 있었다. 이번 토마스 컨설턴트 인수로 딜로이트안진은 상업시설의 기획 단계부터 시장분석, 개발 전략 수립·운영까지 전 단계를 자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됐다. 경쟁 자문사 대비 차별성이 돋보이는 전략이다.

딜로이트 안진 부동산그룹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 최근 상업용 부동산 전문컨설팅 회사를 인수한 데 이어 그룹 리더 교체에 필두로 대대적인 인사개편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 자문업계에서 안진의 지위는 국내 빅 4 회계법인 중 단연 톱티어(Top-Tier)다. 이토록 과감히 변신해야 할 이유가 될까.

딜로이트 안진이 이번에 합병한 '토마스 컨설턴트'는 캐나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전문업체다. 주로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 리테일 시설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리테일 부문의 자문 비중이 다소 적은 딜로이트 안진이 새로운 기획력을 확보하게 해준 M&A라 할 수 있다. 국내 회계법인인 자문업체를 통째로 인수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남다르다.

토마스 컨설턴트 인수는 딜로이트 안진의 상업시설 부문 자문이 취약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된 것이다. 딜로이트

안진의 연간 부동산 부문 매출(자문 실적)은 100 억원이 넘는다. 국내 회계법인 중 유일하다.

그동안 국내 회계법인의 부동산 자문은 사업성 분석과 거래자문, 부동산 중개 등의 업무에 국한돼 있었다. 이번 토마스 컨설턴트 인수로 딜로이트 안진은 상업시설의 기획 단계부터 시장분석, 개발 전략 수립·운영까지 전 단계를 자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됐다. 경쟁 자문사 대비 차별성이 돋보이는 전략이다.

‘SPC 사옥’ 강남 P 타워, 한강에셋 품에(더벨, 6.12)

‘SPC 사옥’ 강남 P타워, 한강에셋 품에

제안가격 3180억원...한강에셋의 첫 국내 투자

박사은 기자 공개 2018-06-12 17:24:47



이 기사는 2018년 06월 12일 17:23 **더벨 유료페이지**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SPC그룹이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강남P타워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한강에셋자산운용이 낙점됐다. 한강에셋은 한 달여간 상세실사를 거친 후 매도자와 최종가격을 결정,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P타워 매도자인 코람코자산신탁과 주관사 딜로이트안진은 이날 한강에셋자산운용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기로 결정, 이를 공식 통보했다. 앞서 코람코자산신탁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거래가는 318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15일 마감된 P타워 매각 입찰에선 코람코자산신탁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안해 유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한강에셋자산운용이 응찰 후보들 중 유일하게 출자자(LP)로부터 투자확약서(LOI)를 확보, 딜 종결 가능성을 높이면서 후한 점수를 얻었다.

P타워는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지하 6층~지상 20층 규모 빌딩이다. 연면적은 4만 4129㎡다. 3호선과 신분당선이 교차하는 양재역이 인접해 있어 편리한 대중교통 접근성을 갖췄다. 이번 입찰에는 코람코자산신탁과 한강에셋자산운용 외에 KB자산운용, 마스틴자산운용, JR투자운용 등 총 10곳 넘는 운용사들이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코람코자산신탁은 지난 2013년 2600억원에 강남P타워를 매입했다. 코람코자산신탁 관리리스를 통해서다. 당시 한국고직원공제회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공제회, 코리안리저브빌 등이 주요 출자자(LP)로 참여했다. 3180억원 수준에서 거래가 마무리된다면 코람코자산신탁은 600억원 가까운 차익을 거두게 된다.

P타워의 새 주인이 된 한강에셋자산운용은 2년 전 자산운용업 등록을 마친 후 현재까지 약정 기준 약 9600억원 가량의 투자를 단행했다. 오는 7월 AUM 1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주로 해외부동산 및 인프라 투자에 주력해왔던 한강에셋자산운용이 국내 오피스빌딩에 투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안가격 3180 억 원...한강에셋의 첫 국내 투자

SPC 그룹이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강남 P 타워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한강에셋자산운용이 낙점됐다. 한강에셋은 한 달여간 상세실사를 거친 후 매도자와 최종 가격을 결정,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P 타워 매도자인 코람코자산신탁과 주관사 딜로이트 안진은 이날 한강에셋자산운용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기로 결정, 이를 공식 통보했다. 앞서 코람코자산신탁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거래가는 3180 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15일 마감된 P 타워 매각 입찰에선 코람코자산운용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안해 유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한강에셋자산운용이 응찰 후보들 중 유일하게 출자자(LP)로부터 투자확약서(LOI)를 확보, 딜 종결 가능성을 높이면서 후한 점수를 얻었다.

P 타워는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지하 6 층~지상 20 층 규모 빌딩이다. 연면적은 4 만 4129 ㎡다. 3 호선과 신분당선이 교차하는 양재역이 인접해 있어 편리한 대중교통 접근성을 갖췄다. 이번 입찰에는 코람코자산운용과 한강에셋자산운용 외에 KB 자산운용, 마스틴자산운용, JR 투자운용 등 총 10 곳 넘는 운용사들이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어종별 휴어지원제도 실시해야(농수축산신문, 5.29)

지원범위는 선원임금 한정...비율은 미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농수축산신문

어종별 휴어지원제도 실시해야

지원범위는 선원임금 한정...비율은 미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김동표 기자 | 승인 2018.05.29 17:52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어종별 휴어지원제도를 실시하되 지원범위는 선원 임금에 한정해야한다는 분석이다.

전문 경영인실업지원센터 딜로이트 컨설팅은 지난 5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부 의뢰로 수행한 ‘휴어제 타당성 분석 및 도입방안연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서는 근해어종 중 고등어와 삼치, 멸치가 휴어지원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안어종은 문어가 꼽혔다.

휴어지원제도의 지원범위는 선원들의 임금으로, 정부가 예산을 들여 어업인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원비율은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수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산자원 감소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휴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휴어지원제도와 별개로 어업인의 불법조업에 대해 보다 강경한 대응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어종별 휴어지원제도를 실시하되 지원범위는 선원 임금에 한정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딜로이트 컨설팅은 지난 5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부 의뢰로 수행한 ‘휴어제 타당성 분석 및 도입방안연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서는 근해어종 중 고등어와 삼치, 멸치가 휴어지원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안어종은 문어가 꼽혔다.

휴어지원제도의 지원범위는 선원들의 임금으로, 정부가 예산을 들여 어업인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원비율은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수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산자원 감소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휴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휴어지원제도와 별개로 어업인의 불법조업에 대해 보다 강경한 대응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수원, 딜로이트 컨설팅과 에너지 신사업 발굴(디지털타임스, 6.14)

수력·신재생 패키지 수출 등 추진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미래 에너지 신사업 발굴을 위해 직속 전담 조직을 만들고 외부 컨설팅을 받는 등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 12일 경주 본사에서 경영 컨설팅 전문 업체인 **딜로이트 컨설팅**과 함께 신사업 발굴 착수회의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한수원은 정 사장이 취임 직후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CEO(최고경영자) 직속으로 '변화와 성장 테스크포스(TF) 팀'을 신설해 성장사업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착수회의로 한수원과 딜로이트 컨설팅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사업, 해외 수력·신재생 패키지 사업, 수소 등 미래 에너지를 활용한 사업 등을 집중해 발굴한다. 아울러 회사의 강점을 활용한 스마트 원전사업과 회사 보유 자산·발전 부산물을 활용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신사업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소년원 학생과 멘토들이 함께한 '즐거운 산행'(세계일보,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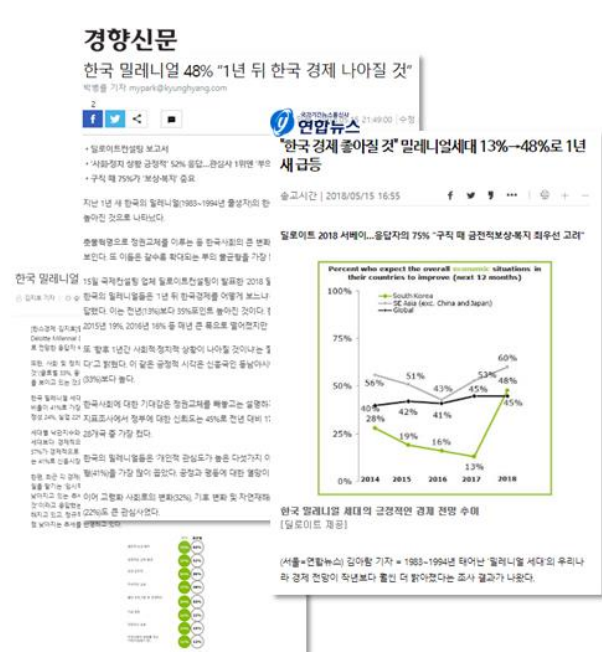
법무부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안양소년원·원장 오영희)는 5일 경기도 안양 삼성산 삼막사(3.92 km)로 사제와 멘토가 함께 나들이를 왔다. 이날 행사는 오영희 원장 등 직원 37명, 학생 72명과 **딜로이트 안전회계법인** 백인규 전무 등 24명의 멘토가 함께 했다.

딜로이트 안전회계법인은 2013년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와 처음 인연을 맺은 뒤 학생들에게 꾸준히 장학금 지급은 물론 분기별로 실시하는 사제 체육대회에 연 1회 참여해 기관 간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고 있다. 올해는 전교생과 함께 삼성산 삼막사로 나들이를 감으로써 좀 더 특별한 추억을 쌓았다.

딜로이트 안전회계법인 백인규 전무는 “학생들과 함께 체험 OX 퀴즈도 하고 학생들의 장기자랑 구경도 하면서 학생들의 넘치는 끼로 인해 즐거움도 얻고 에너지도 충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새로운 추억을 쌓고 싶다”고 말했다.

오영희 원장은 “사회적 시선으로 보면 부족한 게 많은 학생들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끼와 열정이 풍부한 학생들”이라며 “부정적 시선보다 긍정적 시선으로 보듬어 주면 신뢰한 만큼 변하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국 밀레니얼 48% “1년 뒤 한국 경제 나아질 것”(경향신문 A17면, 5.16)



딜로이트 컨설팅 보고서 '사회·정치 상황 긍정적' 52% 응답...관심사 1 위엔 '부의 불균형' 꼽아
구직 때 75%가 '보상·복지' 중요

지난 1년 새 한국의 밀레니얼(1983~1994년 출생자)의 한국경제와 정치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딜로이트 컨설팅이 발표한 '2018 딜로이트 밀레니얼 서베이'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밀레니얼들은 '1년 뒤 한국경제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48%가 '개선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전년(13%)보다 35%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한국경제에 대한 기대감은 2014년 28%, 2015년 19%, 2016년 16% 등 매년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이번엔 대폭 반등했다.

또 ‘향후 1년간 사회적·정치적 상황이 나아질 것인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2%가 “그렇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긍정적 시각은 신흥국인 동남아시아 밀레니얼(49%)은 물론 글로벌 전체(33%)보다 높다. 한국의 밀레니얼들은 ‘개인적 관심도가 높은 다섯 가지 이슈가 무엇인냐’는 질문에 대해 부의 불균형(41%)을 가장 많이 꼽았다. 공정과 평등에 대한 열망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32%), 기후 변화 및 자연재해(26%) 등을 꼽았다. 경제 안정성(24%), 실업(22%)도 큰 관심사였다.

직장을 구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에 대해 한국의 밀레니얼들은 금전적 보상·복지(7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긍정적 근무환경(57%), 유연근무제(54%)였다. 글로벌 밀레니얼도 금전적 보상·복지(63%), 긍정적 근무환경(52%), 유연근무제(50%)를 중요시했지만 한국만큼 우선순위가 높지는 않았다. 이번 서베이에는 세계 36개국 1만 455명(학사 이상 학위 소지한 정규직)이 응했다.

세계 명품시장 'K 뷰티'가 안 보인다(서울경제, 6.3)

서울경제

부동산 경제·금융 산업 정치 사회 국제 오피니언 문화·스포츠 포토

▶양정익 · 아파트주택 · 오피스상가토지 · 건설업계 · 간접투자 · 기획연재

세계 명품시장 'K뷰티'가 안 보인다

글로벌 명품 100대 기업에 K뷰티 단 한곳도 이름 못 올려
J뷰티 2곳 등 日 4개사 신규진입

리세민 기자 · 2018-06-03 17:35:32 · 생활

[이미지] [가] [가]

‘글로벌 명품 100대 기업’ 한국·일본 업체 현황

17위 시세이도 프리스티지&프래그런스(일본)	매출 37억 3,600만 달러
29위 온워드 홀딩스(일본)	18억 4,200만 달러
41위 플라 오르비스 홀딩스(일본)	13억 4,800만 달러
56위 산요 쇼카이(일본)	6억 2,200만 달러
65위 성주 D&D(한국)	4억 9,700만 달러
91위 미키모토 코스메틱(일본)	2억 4,700만 달러

자료: 딜로이트, 2016년 회계연도 기준

글로벌 명품 100대 기업에 'K 뷰티'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J(일본) 뷰티'는 대거 이름을 올렸다.

3일 딜로이트 글로벌이 발표한 '2018 명품 글로벌 파워'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0대 명품 기업에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MCM으로 유명한 '성주 D&D'가 65위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국내에서 내로라 하는 K 뷰티 업체는 100위권에 명단을 올리지 못했다. 이번 순위는 2016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J 뷰티 기업의 활약이 돋보였다. 화장품 업체 '시세이도 프리스티지&프래그런스(17위)'와 '플라 오르비스 홀딩스(41위)'가 100대 명품 기업에 신규 진입했다. 지난해 시세이도는 비즈니스 부서의 조정으로 일부 매출이 집계되지 않아 100위권 안에 포함되지 못했다가 이번에 다시 합류했다. 이외에도 의류 업체 '온워드 홀딩스(29위)'와 '산요 쇼카이(56위)'가 새로 이름을 올려 신입 명품 기업 12곳 중 네 군데가 일본 기업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명품 100대 기업에 K 뷰티 단 한곳도 이름 못 올려 J 뷰티 2곳 등 日 4개사 신규진입

글로벌 명품 100대 기업에 'K 뷰티'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J(일본) 뷰티'는 대거 이름을 올렸다.

3일 딜로이트 글로벌이 발표한 '2018 명품 글로벌 파워'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0대 명품 기업에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MCM으로 유명한 '성주 D&D'가 65위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국내에서 내로라 하는 K 뷰티 업체는 100 위권에 명단을 올리지 못했다. 이번 순위는 2016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J 뷰티 기업의 활약이 돋보였다. 화장품 업체 '시세이도 프리스티지&프래그런스(17위)'와 '플라 오르비스 홀딩스(41위)'가 100대 명품 기업에 신규 진입했다. 지난해 시세이도는 비즈니스 부서의 조정으로 일부 매출이 집계되지 않아 100위권 안에 포함되지 못했다가 이번에 다시 합류했다. 이외에도 의류 업체 '온워드 홀딩스(29위)'와 '산요 쇼카이(56위)'가 새로 이름을 올려 신입 명품 기업 12곳 중 네 군데가 일본 기업으로 나타났다.

반면 K 뷰티는 시세이도를 필두로 명품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는 J 뷰티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내 대표 화장품 업체의 이름은 순위권에서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내 뷰티 업체는 굴지의 해외 화장품 업체와 달리 진출한 국가 수 자체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매출을 놓고 비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명품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한 곳은 루이비통모에헤네시그룹(LVMH)이었다. 루이비통·펜디·불가리·마크 제이콥스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LVMH 그룹은 2016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234억 4,7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전 세계 100대 명품 기업의 총 매출인 2,170억 달러 중 9%를 차지하는 정도다. 매출 2위는 글로벌 뷰티기업 에스티로더컴퍼니즈(118억 2,400만 달러)였다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a UK private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DTTL”), its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kr/about to learn more about our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This communication is for internal distribution and use only among personnel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None of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communication.

